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aluit.
		배포일시	2020. 12. 22.(화) / 총 9매(본문4, 붙임5)	पार्गान
담당 부서	기획총괄과	담 당 자	• 과장 구본철, 팀장 한휘진, 사무관 박지윤·노승원 • ☎ (02) 2131-2022, 2026	
	공원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안세희, 사무관 김민정·최종 • ☎ (02) 2131-2036, 2033	승연
보 도 일 시		2020년 12월 2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2.(화) 16:30 이후 보도 가능		

# 더 넓어진 용산공원,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

### - 22일 제3차 용산공원조성추진위서 주요성과 및 추진현황 점검 -

- □ 정부는 12월 22일 유홍준 민간공동위원장(전 문화재청장)주재로 열린 제3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(이하 위원회)에서 그 간의 성과와 용산공원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.
- □ (공원 경계확장) 위원회는 용산공원 북측의 경찰청시설 신축예정 부지\*(1.32만㎡, 용산역 인근 대체부지로 이전)를 포함한 구(舊) 방위 사업청 부지(9.56만㎡)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였다.
  - 위원회는 출범 이후 인근 국공유지 총 57만m²를 공원경계 내로 편입시켜 공원 면적\*을 23퍼센트 가량 넓혔으며,
    - \* (제1회 위원회, '19.12) 약 243만㎡ → (제2회, '20.7.) 약 291만㎡ → (제3회, '20.12) 약 300만㎡
  - 이를 통해 단절된 **남산-한강 녹지축이 연결**되고, **용산공원 남측과** 북측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□ (부분반환 부지 활용) 올해 12월 반환된 용산 기지 일부(스포츠필드\* 및 소프트볼장\*\*)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거쳐 활용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.
  - \* 국립중앙박물관 북측, 약 4.5만m² / \*\* 기지 동남쪽, 장교숙소 5단지 북측, 약 0.8만m²
  - 내년 개방될 부지는 용산기지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야구장,
    축구장, 및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던 공간으로, 넓은 잔디밭
    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여
   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□ (공원 명칭 국민공모) 올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공원 명칭
  광모결과(10.19.~12.4.), 활발한 국민 참여를 통해 총 9,401건이 접수되었다.
  - 위원회는 전문가 심사결과 선정 된 상위 5개안(기존 "용산공원"
    외 우수제안 4개)에 대해 12월23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온라인
   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명칭을 의결하고, 내년 상반기 명칭 선포 및
    시상식을 개최 할 계획이다.

#### 《 용산공원 명칭공모 온라인 투표 대상 (가나다 순)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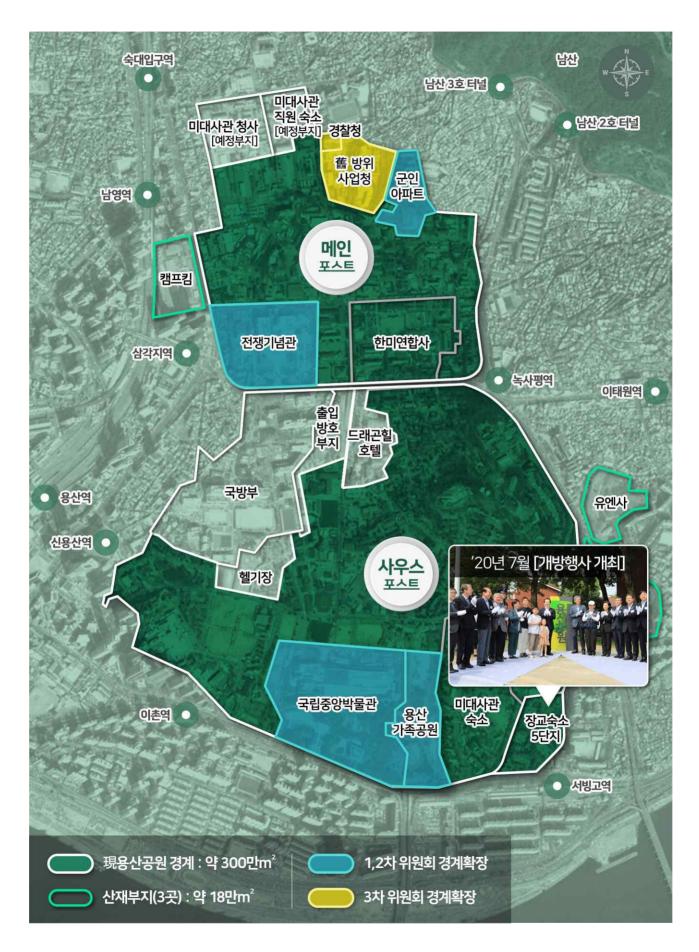
명 칭	의 미	
용산공원	▶ 10여년간 사용되어 친숙하고, 직관적으로 대상이 떠올려짐	
용산국가공원	▶ 제1호 국가공원으로, 국민의 사랑을 받는 힐링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	
용산늘품공원	▶ 앞으로 더 좋게 발전하다는 순우리말,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늘 품어주는 공원	
용산미르뫼공원	▶ 용(미르)과 산(뫼)의 순 우리말	
용산열린공원	▶ 역사를 거쳐 자유와 평화의 땅으로 열린공간, 무한한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열린공원	

\* 공모지침 상 기존명칭은 심사 제외대상이므로 '용산공원'은 시상에서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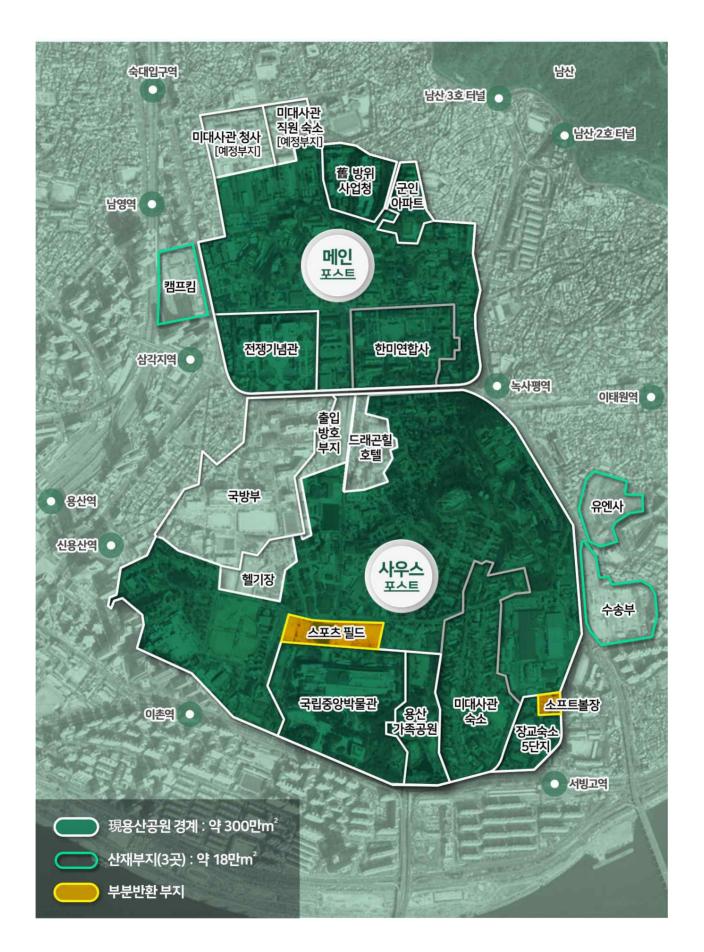
- □ (공원 조성계획 확정) 내년에는 300명의 국민 참여단 활동을 거쳐,국민 의견이 적극 수렴 된 공원 조성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.
  -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 참여단의 공원 정체성, 국민활용, 주변지역 연계, 역사유산 이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원 조성계획(안)에 대한 국민권고안을 마련하고, 생태 축 유형 등 심층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도 병행 추진한다.
  -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권고안과 전문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조성 계획을 보완하고,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.
- □ (장교숙소 5단지 추가개방) 올해 8월부터 개방·운영 중인 장교 숙소 5단지가 내년에는 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국민 들을 맞이할 계획이다.
  - 그간 장교숙소 5단지에서 도보투어\* 등을 운영하여 5,000여명의 국민들이 전시관을 둘러보며 용산공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. 한편,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, 더 많은 시설물을 개방\*\*하고 편의시설을 요청하기도 하였다.
  - \* '20.10.27.부터 12.5.까지 도보투어(역사문화해설강의) 총 60회 실시, 323명 참여 \*\* 현재 장교숙소 5단지 내 시설물 18개동 중 5개동 개방·운영 중
  - 이와 관련, 지난 11월 실시한 장교숙소 5단지 잔여시설 13개동\*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결과\*('20.11.2.~11.23.), 휴양·피크닉 공간, 용산 공원 미리보기 공간 및 도심공원 속 야영장 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
    - \* **우수작 5건** : ① 휴양·피크닉존 등, ② 용산공원 프리뷰(역사·전시공간), ③ 캠핑공간, ④ 마을기업·예술창업 공간 ⑤ 문화예술 창작·공유 공간

- 의원회는 공모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잔여시설
  활용원칙을 수립하고, 운영자 선정 및 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
 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.
- □ (시설물 조사 및 아카이브 추진)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으로 사용이 중단된 용산공원 부지 내 시설물의 노후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내·외부 기본조사\*를 내년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.
  - \* 금년 관계기관(국토교통부, 국방부, 문화재청, 서울특별시)합동으로 기지 내 시설물 421동 기본조사 완료(전체 약 1,000동), 내년 약 200동 조사 추진
  - 위원회는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구조안정 조사와 함께 내년에는 주요 시설물을 중심으로 역사·문화재적 가치검토를 위한 연구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,
  - 향후 정밀조사 결과와 문화재적 보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시설물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.
  - 또한, 시설물 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자료들과 긴 호흡으로 추진되는 공원화의 전 과정 등을 생생히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 구축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.

### 용산공원 경계 확장 추진안



### 일부 반환 된 용산공원 부지 개방





### 용산공원 조성계획 확정

# ▮ 국민 참여단 운영계획





# ▮ 국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 논의주제





### 장교숙소 5단지 잔여시설 추가 활용계획

5단지 장교숙소 시설 활용현황



추가 활용방안 예시 \*아이디어 공모('20.12)주요수상작

